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사은경품 추첨행사를 필미로 수집한 응모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다수의 보험회사에 되팔아 231억 7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익의 신상정보를 빼내 돈으로 맞바꾸는 도둑질을 해온 것이다. 홈플러스는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생년월일이나 자녀수까지 요구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명목상 고객감사 이벤트를 표방한 경품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품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거나 약속한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였던 것이다. 그저 말뿐이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홈플러스가 대대적으로 광고한 경품 가운데는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와 고급 외제차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품에 당첨된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내부직원 또는 그들의 지인이었다고 하니 홈플러스

의 기업윤리는 엉망진창이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홈플러스는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유통업계의 보편적 마케팅 관행이라는 뉘앙스로 변명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전국적인 홈플러스 불매운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목적에 이용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단순히 '홈플러스 경품조작사건' 이 아니라 조직적인 '불법개인정보 판매사업'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일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든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글로벌 유통기업 테스코의 자회사라는 명성을 배경으로 승승장구해왔으나 이번 일로 말미암아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마디로 말해 홈플러스는 동네 주민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생필품을 팔던 약덕기업이 아니고 무엇이랄 말인가. 홈플러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성원에 보답하고자 사은품을 증정하겠으니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하라고 해놓고 이를 1건당 1980원에 팔아 먹고 말았으니 말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1980원짜리 딱지 정도의 취급을 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인격체의 값어치가 그런 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인 '홈플러스는 큰 기업보다는 존경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공계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가중스럽게도 내세운 호소의 소실 '큰 바위 얼굴'의 상징성을 기업이미지로 선택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다. 원래 큰 바위 얼굴의 함축적 의미는 부(富)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내면적이고 질적인 자기성찰을 강조하는 가치관이지 않던가.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이용해온 홈

플러스는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된 홈플러스의 전, 현직 임원들과 보편사직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유이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서 보여준 솜방망이 처벌은 정보화 사회의 상호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관계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체로운 불자라면 홈플러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오늘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내지는 가치경영의 철학을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일부기업들이 사악한 이윤추구의 발톱을 윤리적 가치의 추구라는 그럴듯한 기업이미지 혹은 경영전략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을 앞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기업의 위선과 횡포에 주목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심정이다. 홈플러스의 진정성 있는 참회를 요구한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새로운 설 문화 템플스테이로 만들자

올해에도 어김없이 설날이 다가왔다. 특히 올해 설 연휴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 이상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벌써 적지 않은 국민들은 해외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본지 1029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시장에서는 설 합동차려 참석인원이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장 관계자 역시 "차려 후에 곧 가족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설 명절은 한국의 미풍양속이고 이를 통해 가족 친지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단순히 먹고 쉬는 날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이왕 떠나야 하는 자리라면 흥청망청 시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를 세울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가보려면 한다. 올해도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은 산문을 열고 설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명상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부터 가족과 연인이 함께 민속놀이와 불교문화 등을 체험하고 일년 소원과 희망을 그려보는 체험형 템

플스테이, 지친 심신을 쉬어가는 휴식형 템플스테이까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불교 역시 변화하고 있는 설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3년 발표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성취도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아성찰 등 정신건강 가치가 5.45(7점 만점)로 가장 높았으며, 템플스테이 발전의 중요 가치 역시 정신건강이 6.32(7점 만점)으로 국민들은 템플스테이의 정신적 가치에 기대·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설 문화로 템플스테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출가와 재가, 가족과 소외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새로운 명절 수행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차례와 함께 통달과 성불도 높이 등 불교 명절문화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선우 청년회에 거는 기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음은 이제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 결혼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불교를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화제다. 바로 우리는선우 청년회다. 독실한 불자 부부인 우리는선우 이사장 유필화 교수와 한성대 불교동아리를 지도하는 이기향 교수의 발의로 의해서 탄생했다. 두 교수의 제자를 청년 20여명이 주축이다. 월 1회씩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1월 31일 대방동 창립식에 모인 회원들의 연령대는 25세부터 40세까지였다. 직업도 대학생, 미술학도, 뮤지션, 보석디자인, 광고기획자, 화사원 등 각기 다양했다. 회원들은 불교가 좋지만 불교를 주제로 이야기할 만한 토레가 없거나, 혹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수행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

는 이들로 청년회 발족에 대한 기대가 컸다. 사실 노령화된 불교계가 불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신행단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갈증에 목말라하는 청년들이 모인 것이니 만큼 앞으로 첫 단추는 무거운 불교이야기 보다는 청년들이 일상서 겪는 문제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행복해지는 법을 교류하길 바란다. 사실 우리는선우 청년회 모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4년 청년회를 창립해 기도와 교리공부 위주의 단순 수행서 벗어나 사회봉사를 통해 심신을 다지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우리는선우 청년회는 청년들의 불교 관심 부재로 잠시 침체를 맞으며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그런 아픔도 겪었으니 이제는 더욱더 견고해 지고 사명감도 투철해질 것이라 믿는다. 한국불교의 미래는 바로 이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발언대

‘입법계품’과 ‘사부대중 대중공사’



범승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1월 28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지홍스님)'는 출범식에서 '중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8대의제'를 선정했다. 8대의제는 (1)중단 인제양성과 포교프로그램 개발 (2)사찰 재정 투명화 (3)중단 신뢰 구축 (4)사부대중 참여를 통한 중단 활성화 (5)승가공동체 회복 (6)사회적 의제 실천 (7)지역사회 사찰의 위상과 역할 강화 (8)교구중심의 지방분권화 강화다. 여기서 잠시 화엄경의 입법계품을 살펴 보기로 한다.

는 비로자나장엄장 누각이 이처럼 가지가지로 해아릴 수 없이 자유자재한 경계를 보고 아주 기뻐했으며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다.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은 것은 기억하며 생각이 어지럽지 않아 결립 없는 해탈문에 들어갔다. <출처:민족사 간행 <화엄경>

영이론을 입법계품에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다 나와 있다. 타종교나 사례를 예로하거나 차입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동안 주체들이 중단 운영에 있어서 무명업장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노력 그리고 창조적 사유가 부재했음을 반성해야 한다.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확장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거론된 각 분과(모듬)의 '선정 주제'를 보면 어딘지 100년 대계를 위한 근원적인 유신을 위한 내용이라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세월 자체가 돼 있다면 일 년이나 그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을 스스로 떠올려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은 그대로 신뢰를 높이는 일이며 성공의 담보 조건이기도 하다. 종단이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조건인 구대약속의 철폐는 곧 단했다"와 같이 일순에 단절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묻어서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당장 내일 열리는 법규위원회 등 종단의 최고 판단기관에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어찌 처결되는지에 따라 선정성과 의지가 가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정된 각 의제를 달성하려면 결국 사람, 의식, 재정, 관리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지속해서 거론된 승가 구성원의 불교에 대한 이해 등 내부 철학의 문제, 기독교 포기, 파벌문제, 중원중법에 대한 원칙적 집행과 일대 개정과 같은 과제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어디까지 얼마나 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제동자가 누각의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마음을 내었듯, 진정한 백년대계를

하야간 종단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라는 명칭으로 조계종의 모든(문제) 것을 진단, 대 해부해서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온갖 불신 속에서도 또 다시 중단 운영의 직간접 주체를 스스로가 중단조직과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해부하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미륵보살이 누각 앞에서 손가락을 뽕겨 소리를 내니 문이 곧 열리고 경이로운 세상이 전개 되었듯이 몇 개월 후 종단은 우리에게 유신된 새로운 모습을 전개해 보일까. 향후 기대해 볼 일이다.

한량없는 누각이 있었는데 크고 넓고 화려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서로 장애되지도 않고 어지럽게 섞이지도 않았다. 선체가 한 곳에서 모든 곳을 보듯이, 모든 곳에서 또 다 이와 같이 보았다. 선계동자

이는 필경 우리가 구현해야 하는 종단과 세상의 풍경이다. 조계종의 구조와 조직이 위 이야기 속의 선계동자가 들어간 누각 안의 광경처럼 각각이 독립적이되 유기적인 관계여야 하며, 구성원들은 '자유자재한 경계'로 종단을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불자와 국민들이 '해탈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혹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자재한 경계'라는 것이 부처님의 근본가르침 중 제일 덕목인 무소유와 청정함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즉, 총무원과 본사 등 각 종헌기구 는 이러한 정신과 환경의 토대 위에서 장엄한 모습이 형성되고 종도와 각 사찰 그리고 세상이 사람들에게 투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족이지만, 현대사회의 국가나 기업에서의 조직구성과 관리, 경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교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배의 상자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배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孝 불경 라디오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안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www.hyunbulshop.com
구입처: 현대불교헌불사 (02)2004-8214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치의 기도
2. 불치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영 염불
10. 지낸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반송으로 왔다가
13. 사랑을 잃는
14. 여름 발레는 겨울이 있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며
19. 남의 과실을 따지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눈을 접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법상계
31. 참선곡
32. 우리발 반야심경
33. 관음장군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불합니다
36. 예불가
37. 찬불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갈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하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로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말본